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정읍 고부 대외마을)

발행인 정우식 / 발행일 2023년 6월 12일 / 54984 / 전주시 완산구 영경1길 16(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청소년 교육 · 문화의 길을 열어갑니다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소식
www.blue21.or.kr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2023년
6월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원장 남 상 팔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푸른 5월이 가고, 녹음방초와 함께 어김없이 6월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의 아픔도 종식되고 있습니다. 20여 년 넘게 이어온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도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사를 진행해온 것은 우리 문화원의 자랑입니다. 올해는 일상으로 돌아와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을 전주비전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북녘 동포에게 편지쓰기도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행사를 통해 민족 통일과 평화로 가는 분위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려 합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교사-시민-학생들이 함께하는 ‘평화와 만나는 평화길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 동학에서 통일로!’를 주제로, 혼불문학상 수상 작가이기도 한 「봉준이, 온다」의 저자 이광재 작가를 길라잡이로 모시고 정읍, 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다녀왔습니다. 동학혁명 모의탑, 사발통문 작성지,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탑에서는 작가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살피고, 황토현에서는 평등 세상과 자주 세상을 위하여 보국안민을 실현하려 했던 동학 농민의 혁명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봄비를 맞으며 전봉준 장군 생가터, 무장읍성, 고창읍성으로 동학농민군의 발자취를 더듬었습니다.

동학 농민들이 평등과 자주 세상을 꿈꾸었듯, 요즘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난 2월 개봉하여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음 소희」는 대기업 통신사 콜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3학년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시간 18분 동안 영화를 보면서 과거 현장실습을 보낸 교사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조례조차 없는 전북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우리 문화원이 적극 나서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며 협의하였고, 전북도의회에서 권요안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월 26일 제정·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행복하게 삶을 영위해갈 날을 꿈꾸며, 영화 속 ‘소희’가 외친 대사를 다시 새기며 글을 마칩니다.

“힘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이나 한다고 더 무시해.”

2023년 6월

글 실는 순서

- | | | |
|---------------------------------|-------|---------------------------------|
| 표지 - 평화길 순례 무명동학농민군위령탑 | 06 | 평화길 순례 |
| 02 인사말 - 든 일을 하면 존중받으면 좋을 텐데... | 07 | 2023년 봄, 평화길 순례를 다녀와서 |
| 03 소식, 하나 - 현장실습 조례 제정 | 08-09 | 답사동아리 소식 |
| 04 소식, 둘 - 건강 운동 동아리 '화목화' 활동 | 10-13 | 정우식 - 전주천, 삼천 버드나무 별목 |
| 소식, 셋 - 정해숙 선생님, 『김대중 연대기』 | 14 | 고전의 향기 - 전우원 사죄는 원모(怨慕)로 발현된 효행 |
| 05 소식, 넷 - 2023 정기총회·회원의 날 | 15 | 연대사업 / 회원 동정 |
| 제60차 이사회, 정기 감사 | 16 |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안내 |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의결

— 우리 문화원 노력 결실, “조례 제정·시행 환영” 논평 —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월 26일(금)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 시행되었다. 우리 문화원에서는 논평을 통해 조례 제정과 시행을 환영하였다.

우리 지역 전주에서 발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다음 소희》의 울림으로, 우리 문화원은 지난 3월 초, 직업계 고교 현장실습 개선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정을 비롯한 몇 가지를 전북교육청과 국회와 지역 사회에 촉구한 바 있다.

특히 학생 인권 전도사처럼 행세하던 전임 김승환 교육감이 영화《다음 소희》의 실화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일 정도로 지역 상황이 열악한데도 이를 끝내 방관하며 현장실습에 나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 하나 만들지 않은 채 12년 임기를 마친 것을 지적하였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북교육청이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부터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전북도민일보 캡처

우리 문화원이 제안하고, 권요안 의원이 대표 발의

이에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면서 조례 제정은 급물살을 탔다. 권요안 의원은 우리 문화원의 제안을 받자마자 곧바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을 비롯한 유관 시민 단체, 일선 학교는 물론 교육청 관계자 등과 협의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차례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조례안 제정을 준비했고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박정희, 김대중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함께했다. 현장의 요구를 즉각 수용한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직업계고 현장실습과 관련한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하여 교육감의 지도 감독 의무, 학교장의 지도 점검 의무 등 현장실습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학생 안전과 노동인권보호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있다. 현장실습 지도 점검 및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실습 중 신체적, 정신적 위험 발생이 우려될 때는 실습 거부나 중지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다른 시·도 조례에 비하여도 진일보한 면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장실습 운영과 지원에 겨우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업은 보다 최선을 다하고, 학교와 교육청은 빈틈없이 관리 감독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다행히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도, 현장실습생을 폭행이나 강제 근로, 중간착취,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할 근거가 될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



권요안 의원

는 10월부터 시행된다. 물론 국회는 법의 미흡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안전한 노동환경과 현장실습 지원 못지않게, 청소년들이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리지 않고 더 나은 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직업계 고교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도 필요하다. 전북교육청과 도청이 취업 지원 시스템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4월 7일, 현장실습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앞서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은 4월 7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요안 의원을 좌장으로 박정희 도의원, 우리 문화원 정우식 이사장, 남상팔 원장을 비롯해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취업전담교사와 장학사 등이 참석하여 현장실습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소식, 들

건강 운동 동아리 '화목회' 활동



우리 문화원에서는 회원 동아리 활성화를 꾀하며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3월부터는 건강 운동 동아리 '화목회'를 구성하여 건강체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화목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문화원 교육실에 모여 활동하고 있다. 주로 퇴직 교사와 평일 오전에 참석 가능한 회원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들은 '화목회'에 참여하면서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실감하였고, 몸과 맘도 튼튼해지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소식, 셋

정해숙 선생님, 『김대중 연대기』 보내주셨어요.

우리나라 교육운동의 원로이자, 우리 문화원 많은 이들의 정신적 지주이시기도 한 정해숙 선생님께서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출간한 『김대중 연대기』 1집(1~6권)을 우리 문화원에 보내주셨다. 사무실에 비치하고 열독하고 있다.

▶정진백 엮음 | 도서출판 행동하는 양심



2023 정기총회 · 회원의 날



2023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2일(수) 오후 5시 30분, 우리 문화원 교육실에서 오붓하게 열렸다.

아직 코로나 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이어서 조출한 규모로 진행한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주요활동 보고, 2022년 감사 보고, 2022년 결산 보고, 2023년 사업계획 보고, 2023년 예산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정우식 이사장이 평소 존경해온 정양 시인의 시집 『암시랑토양케』를 참석한 회원 모두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시집은 정우식 이사장이 사비로 구매한 것이어서 훈훈한 분위기가 더했다.

시집 발문은 우리 문화원의 자문위원이신 김영춘 시인이 쓰신 터라 시집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다.

제60차 이사회 개최

우리 문화원 제60차 이사회가 2023년 2월 15일(수) 오전 11시, 문화원 교육실 열렸다.

이사회에서는 2022년도 결산의 건, 이사·감사 선임의 건, 2023년 사업계획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정기 감사 실시

우리 문화원 정기 감사(감사 해당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가 2023년 2월 9일(목) 오후 4시, 우리 문화원 사무실에서 이영식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우식 이사장, 남상팔 원장, 이선화 총무국장이 배석하였다.



평화길 순례

— 정읍·고창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

***답사 경로 :** 정읍 대외마을(동학혁명모의탑, 사발통문 작성지, 무명동학농민군 위령탑) –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 고창 전봉준 장군 생가터 – 무장읍성 – 고창읍성

4월 29일, 우리 문화원이 주관하는 평화길 순례 행사, 40여 명의 청소년, 교사, 시민과 함께 동학농민혁명 기행을 다녀왔다.

특히 이번 순례 길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소설로 혼불문학상 수상작이기도 한 『나라 없는 나라』와 전봉준 평전 『봉준이, 온다』의 저자인 이광재 작가가 순례 길라잡이를 해줘서 더욱 알찬 기행이 되었다.

1980년대부터 전북의 교사, 학생들과 수없이 진행해온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기행은 민중의 반봉건 반외세 역사의식을 배우는 교육현장이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항일의병항쟁 – 3.1 독립만세운동 – 4·19혁명의 원동력 – 5.18 민주항쟁 – 6월 민주항쟁으로 면면히 흐르고 있다.

이번 기행은 평화, 민주, 자주 우리 지역 전북의 정신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노라고 말했다.



무장객사 송사지관



전봉준 생가터(고창읍 죽림리)



고창읍성



정읍 황토현 전적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2023년 봄, 평화길 순례를 다녀와서

김진성(전주호림초)

4월 말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이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주관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 동학에서 통일로!’ 평화길 순례에 함께 했다. 전북도청에서 출발하는 대형버스에 마흔 명 남짓 일행이 함께 모여 봄비로 적셔진 들녘을 달려갔다. 이번 답사의 특별함 중 하나는 답사 길라잡이로 혼불문학상 수상 작가이며, 전봉준 평전 <봉준이, 온다>의 저자 이광재 작가님과 함께 하는 것이었다.

작가이기 전에 본디 철학을 전공한 철학도이고 민주화의 뜨거운 역사 현장에서 다투어 살아왔던 작가의 깊은 고민, 때로는 웃음과 때로는 깊은 고독과 슬픔, 연민이 버무려진 삶의 궤적들과 동학을 공부하고 조사하고 기록하며 전봉준 평전을 쓰고 출판하기까지의 뒷이야기를 뜻깊게 버무려내셨다. 당대와 구한말을 교차 편집하듯 흥미롭게 들려주시는 해설은 흥미진진 그 자체였다.

동학을 주제로 크고 작게 여러 차례 다녀온 적이 있다. 학교현장에서도 학생들을 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 인솔해본 경험들이 있었다. 알 만큼 알고 들을 만큼 들었고 볼 만큼 보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이 얼마나 얇은 지식의 수준이었고 겉도는 부박한 것들이었나 돌아보게 되었다. 몇몇 빼어난 장수와 패악질하던 탐관오리들의 이름과 무너져가는 왕조의 이름, 그리고 사건들의 순서와 나열을 교과서 읽듯 알아보고 가르쳤던 것은 아닌가 돌아본다.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129주년이 지났다. 평등한 세상, 자주 세상을 꿈꾸며 거대한 운동이자 혁명으로 일어났던 변혁의 사상과 투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동학혁명은 좌절이 아니라 희망이다. 평화로운 대한민국,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와 상생의 전환적 삶의 확산, 파괴된 가치들의 회복과 서로 돌봄의 사회복지, 인류 보편의 평등의식, 남북의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 세계평화의 중심으로서의 한반도 구축으로 이룩해 나가야 할 현재진행형 미래과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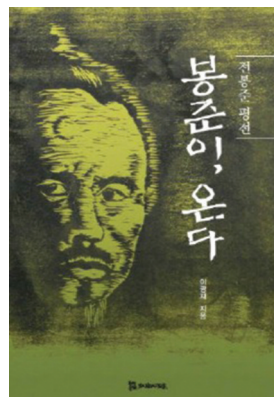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역사문화 답사는 오래도록 정평이 나 있다. “참여하지 않으면 손해다.”라는 말은 허언이 아니다.

평화길 순례는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통일특강, 세미나, 하반기 평화기행 등으로 연속해 나간다고 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뜻깊은 삶의 공간에서의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 이광재 작가



- ▶1989년 무크지 『녹두꽃』에 단편 ‘아버지와 딸’로 등단
- ▶동학농민혁명을 재구성한 『나라 없는 나라』 제5회 혼불문학상 수상(2015)
- 소설집 : 『아버지와 딸』
- 장편소설 : 『내 가슴의 청보리밭』 『폭풍이 지나간 자리』



- ▶전봉준 평전 『봉준이, 온다』 이광재 지음 | 모시는사람들
- ▶『나라 없는 나라』 이광재 지음 | 다산책방

고대사 답사동아리 《고대로 가야해!》 전북지역 곳곳 답사

— 발길 내딛는 곳마다 ‘전북의 역사’가 가슴으로 되살아온다. —

[편집자 주] 우리 문화원 답사동아리 ‘고대로 가야해!’가 출범 1년을 넘었다. 매달 답사를 떠난다. 올해엔 2월부터 답사를 진행했다. 늘 가슴 뛰는 답사다. 매번 우리 고장 천몇백 년을 새롭게 만나고 있다. 여기에는 답사를 길게 소개하지는 않는다. 궁금하면 동아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올해에도 답사 가이드는, 40여 년간 가야와 후백제 연구에 매진해 오신 고고학자 곽장근 교수님이 여전히 재능기부로 해주고 계신다. 정말 놓치지 마시라.

[5월 답사] 5월 27일, 「우리나라 최대 제철 유적, 장수 대적골 발굴 현장을 가다.」



5월 답사 주제는 「우리나라 최대 제철 유적, 장수 대적골 발굴 현장을 가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남덕유산 서봉 대적골로 향했다.

먼저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정자 안에서 보슬비를 피하며 고품격 답사 가이드인 곽장근 교수님의 간략한 브리핑을 받고 기초 지식을 쌓은 뒤 출발했다.

답사는 주로 ‘라’ 구역과 ‘다’ 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해발 770여 미터 ‘라’ 구역 입구 표지판 옆에는 후백제 것으로 알려진 기와 편들이 쌓여 있었다. 상당 부분 불에 타 붉게 산화된 흔적이 뚜렷했다.

통일신라~조선 시대까지의 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삼국~조선 시대에 해당하는 경질 토기편, 고려 도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한다. 특히 기층에서 가야의 것으로 보이는 경질 토기편이 발굴되었다고 한다.

좀 더 올라가 ‘다’ 구역에 이르니 언뜻 보아도 생각보다 많은 양의 쇳물이 널려 있었다. 폭우로 쓸려 내려가기 전에는 훨씬 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니 우리나라 최대 제철 유적이라 할 만하였다. 제련로, 단야시설, 추정 용해로, 석축 시설, 퇴적 등이 조사되었다 한다.



[3월 답사] 4월 1일(토), 장수 장계면 침령산성과 춘송리 신라 고분군

4월 첫날, 장수군 계남면 침곡리 침령산성(둘레 497m)을 찾았다. 침령산성을 오르는 사곡마을 입구에 침령산성 국가사적지 지정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침령산성은 가야, 백제, 신라, 후백제 등 여러 나라 산성 축성기법이 두루 있고, 집수정에서는 다량의 토기, 철기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중요한 유적이다.

산성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너른 장계 분지는 일행의 시야를 고대로 이끌었다. 먼저 찾은 웅장한 남쪽 성

벽은 약 13m로 신라 산성 축조기법이라 한다. 신라는 가야의 테피식 산성을 포곡식으로 증축했고, 성돌은 잘 다듬은 세장방형으로 바른층쌓기로 축조했다. 두께는 얇아 무게를 견디기 버거워 보였다. 침령산성은 운영 국가가 여러 나라로 이어져 다양한 산성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감탄을 자아낸 것은, 후백제와 신라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성벽이었다. 후백제 성벽은 성 돌 두께가 두껍고, 품자형 쌓기로 정교하지만 연결해 수축한 신라 성벽은 세장방형 성돌로 쌓은 모습으로 차이가 있었다.

산성의 압권은 집수정이었다. 산정부에 자리 잡은 성안 집수정을 보자 일행은 동시에 탄성을 질렀다. 물이 가득 고여있어 정교하고 아름다운 계단식 집수시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곳에선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철제 도르레, 쇠화살촉, 토기류, 목제 유물 등이 출토됨으로써 전북 동부 고대문화가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고 했다. 2019년 산성 남쪽 2호 집수시설 발굴지에서도 6세기 말엽 유물들이 나왔다. 산성을 지키며 생활했던 옛사람들의 생활상을 가늠해볼 수 있다.

산성을 내려와 마을회관 앞 침령산성 역사관(이동식 역사박물관)에 들렀다. 작지만 내용이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다. 침령산성 국가사적 지정을 축하하는 현수막들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껏 불철주야 노력해온 연구자, 관계자들의 노고도 적지 않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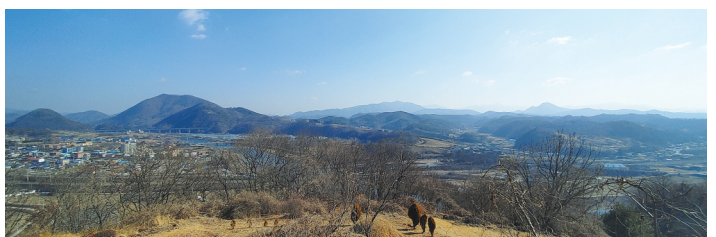
일행은 마을 저 멀리 지난해 방문했던 봉긋봉긋 솟은 삼봉리 가야 고분군을 바라보면서 고대 장계 분지 왕국을 그려보며 답사를 마쳤다.



[2월 답사] 2월 25일(토), 「가야와 백제의 국경선, 관촌」

날씨가 제법 쌀쌀하여 2월에는 전주에서 비교적 가까운 임실 관촌면 대리산성에 다녀왔다. 백제와 가야의 경계였다 한다. 별로 높지 않은 곳인데도 산성 꼭대기 부근에서 둘러보니 관촌 일대는 물론이고, 멀리 장수 팔공산, 진안 마이산까지도 아스라이 사방이 한눈에 들어왔다. 섬진강을 경계로 백제와 가야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니!

나중에 사선대 운서정에 올라 대리산성을 바라보니 정말 깎아지른 절벽이 그 자체로 천연 성벽이었다. 관촌까지 이어진 봉화터를 중심으로 보더라도 반파가야의 역사가 숨 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전북인의 자긍심과 천몇백 년 전 철기문화의 우수성을 자랑했던 전북가야에 또 빠져들었다. 대리산성은 미완성의 백제 산성이어서 더 중요하다. 가야와 백제의 전쟁이 빨리 끝나서 더는 백제가 산성을 운영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편집자 주】 정우식 이사장이 '월간 전라도닷컴 2023-05월호'에 기고한 글이 좀 더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 월간 전라도닷컴의 협조를 얻어 그대로 옮겨 심는다.(10~13쪽)



빼앗긴 봄, 베어진 목(木)

전주시, 전주천·삼천 버드나무 대규모 벌목



전주는 아름다운 도시다. 오목대에서 내려다보이는 한옥마을 까만 지붕, 드라마나 영화 촬영의 필수 코스가 된 전주향교 은행나무는 오히려 예사롭다.

가을이면 시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느티나무 가로수 단풍은 시시각각 황홀하고, 3월말께 한옥마을 천변에 서서 둘러보면 신흥과 산벚꽃 어우러진 산빛에 넋을 잃게 된다. 그때 효자동 정혜사에 가보시라. 산벚꽃 꽃대궐 완산칠봉의 자태에 숨이 막히고야 말리라.

이 모든 풍경 가운데 내게 으뜸은 단연코 전주천 버들잎 유록(柳綠)빛 새순 돋는 풍경이다. 남천교 청연루 마룻바닥에 앉아 한가롭게 전주천을 바라보면 버드나무의 사랑거림을 따라 내 마음도 사랑살랑, 너울너울 한없이 나부낀다.

성공적 사례였던 전주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전주는 ‘온고을’이다. 완산(完山)이든, 전주(全州)든 지명에 모두 온전하다, 결함이 없다는 뜻이 깃들어 있다. 산과 물이 두루 조화로운 때문일 것이다. 산이 마침맞고, 물이 적당하다.

전주의 산은 모자라지도 과하지도 않다. 사방으로 기린봉, 송암산, 남고산, 학산, 천잠산, 황방산, 건지산이 빙 둘러있고, 그 안쪽으로 화산, 다가산, 곤지산(완산칠봉)이 들앓아 있다. 한 겹 외곽으로는 미륵산, 용화산, 봉실산, 종남산, 운장산, 연석산, 만덕산, 고덕산, 경각산, 모악산, 구성산 자락이 외성(外城)처럼 병풍으로 주욱 둘러쳐 있다. 그래서 어느 방향에서든 전주 시내로 들어올 때면 마주보이는 산이 제 품으로 당겨 안아주는 느낌을 받곤 한다.

시내를 관통하는 대표적인 물길은 전주천과 삼천이다. 구이저수지에서 삼례 쪽으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물길이 삼천(세내), 완주 상관에서 삼례 쪽, 곧 동남에서 서북으로 흐르는 물길이 전주천이다. 두 물길은 가리내

에서 합쳐져 삼례로 흘러들고 만경강으로 만난다.

전주천은 연간 1천만 명이 찾는 한옥마을을 끼고 흐르는 사행하천이다. 전주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성공적 사례로 꼽힌다. 법적 보호종인 수달, 원앙, 삿갓고유어종인 쉬리, 꺾지 등이 서식하고 있다. 딸과 함께 전주천을 지나다 원앙을 보며 행복해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이다.

버드나무는 친숙한 풍경이자 뿌리깊은 문화

버드나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문학, 미술, 의학, 종교, 생활 속에서 수없이 등장한다. 그만큼 우리에게 문화적으로 친숙한 나무다.

옛날에는 우물 옆에 버드나무를 심은 곳이 많았다. 뿌리 뻗음이 왕성하고,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덕에 우물가에서 과객에게 바가지



왼쪽 위 | 김지연 사진가가 찍은 '남천교에서 바라본 전주천'(2022).
왼쪽 아래 | 버드나무들이 베어지기 전, 전주천 남천교 일대 풍경. 아름답리 버드나무들이 초록의 행렬로 물결친다.
오른쪽 | 버드나무들이 베어진 뒤, 전주천 남천교 일대 풍경.



무참히 베어진 버드나무 그루터기.



생태 참극을 고발하는 외침.

물에 버들잎을 띄워 건넌 처녀 이야기도 많았을 게다. 왕건과 이성계, 고려와 조선의 두 태조 설화에도 그 이야기 구성이 판박이로 등장한다.

버들강아지는 이름부터 정겹고, 포롭하게 물오른 아들아들한 버들가지 꺾질로 만든 버들피리는 낭만적 추억을 소환한다. ‘고리버들’로는 키, 반질고리, 고리작 같은 일상 생활도구를 만들어 유용하게 썼다. 이순신 장군 낙마 일화에도,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법 지팡이 재료로도 버드나무가 등장한다.

불교 탕화 ‘양류관음도’나 ‘수월관음도’에서 관세음보살은 버들가지를 감로수 병에 꽂거나 들고 있는데, 중생의 작은 바람까지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듣는 보살님 자비를 상징한다 하니 버들가지는 보살님의 관세음(觀世音) 미세 센서이자 감로수 정화제였던 모양이다.

시민들과 협의도 없는 무지막지한 참살

내 봄날을 설레게 하는 전주천 버들 풍경은 늘 강암서예관 앞 남천교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치렁치렁 늘어뜨린 수양버들의 유록빛을 맞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쁨은 과거형이 되고 말았다. 나는 봄의 한 자락을 몽땅 강탈당했다.

최근 전주시는 시민들과 협의도 없이 ‘전주천·삼천 재해예방 수목 제거 및 준설작업’을 추진했다. 하천 범람과 제방 붕괴를 막기 위해 하천 둔치와 호안의 수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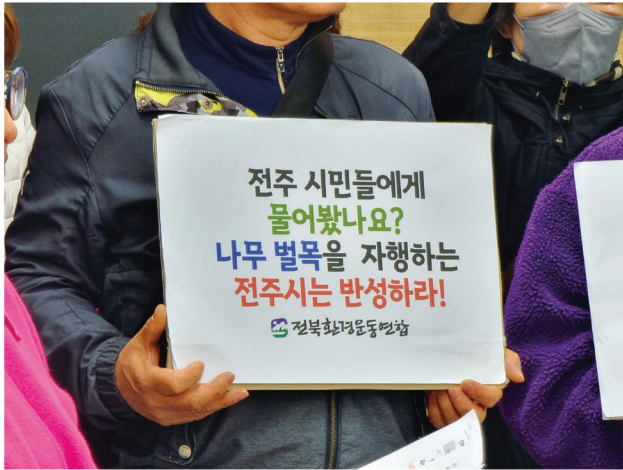
을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전주천 120그루, 삼천 140그루 등 총 260그루의 아름드리 버드나무를 벌목해버렸다. 버드나무뿐 아니라, 물억새와 갈대, 수변 관목들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베어냈고 중장비로 준설까지 마친 곳도 있다. 4대강 사업의 악몽이 떠오른다. 강을 자연으로 대하지 않고 운하로만 바라보는 이 땅의 천박한 효율론자들.

버드나무들은 무지막지(無知莫知)한 시장과 공무원의 폭정으로 하루아침에 참살을 당하였다. 우아한(?) 필자가 격한 표현을 마다 않는 이유는 이 야만성을 어떻게든 고발하고, 반드시 현재의 감정선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이다.

순진한 발상 같지만, 그 학살집행자들이 혹시라도 이 글을 접한다면 자신들의 죄업 때문에 한동안이나마 잠 못 들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이다.

전주시민들은 한때 지독한 오염으로 신음하던 전주천과 삼천이 20여 년 동안 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한 끝에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거듭난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왔다. 누구랄 것도 없이 서로 당연한 무언의 약속처럼 여기며 그렇게 평화로움을 누렸다. 그런 시민들이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더구나 선출직 단체장이 한순간에 처참히 그 무언의 약속을 짓밟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만약 전주시장이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전주천버드나무 지키기 시민공동행동’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은 지난 4월12일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전주천·삼천 버드나무 지키기 시민문화제를 열었다.

260마리를 무자비하게 한꺼번에 참살했다고 가정해보자. 시민들의 분노는 어땠을까.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여러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데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벌목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무를 베어 없애는 것보다 오히려 불요불급한 하천 구조물들을 철거하는 것이 홍수 피해 예방에 효과적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요구에도 시가 아직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린 게 분명하다.

별 짓을 해도 또 봄은 오고 나무는 자란다

우리 아이들이 버드나무를 마구 베어내도 아무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다면, 그 가슴에서 소월처럼 “실버들을 천만사(千萬絲) 늘어놓고도/ 가는 봄을 잡지도 못한다 말인가” 같은 시가 샘솟을 리 없다. 고려나 조선의 도공들처럼 상감청자나 분청사기에 수양버들 문양을 새겨 넣을 생각조차 해볼 수 없을 것이며,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처럼 수양버들 연작을 남길 수는 더욱 없다.

아이들이 봄버들 빛과 버들을 깃들게 하는 아기자기한 맑은 개울과 그 여울에 터 잡고 사는 물고기들과 어울려 놀고 사랑하고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자연이 전주에 내려준 선물인 균형 잡힌 산과 물을 더는 다치지 않게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전주에 사는

우리 어른들의 최소한의 책무이지 않을까.

봄은 또 오고 버드나무는 다시 움틀 것이다. 이번에 잘려나간 버드나무도 사람이 심은 것이 아니고, 절로 자란 것이었듯이 그 자리거나 또 어디에 버드나무는 새로 싹을 낼 것이다.

희망이라면 그것이다. 자연을 믿는다. 인간이 조금만 간섭을 멈추어도 자연은 이내 스스로 그러하듯이 스스로 회복한다.

김광규 시인의 시 ‘4월의 가로수’로 글을 맺는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작금 상황과 오버랩 되는 지점이 있다. 현대문명과 인간의 폭력성, 반생명성, 비정함, 자연의 끈질긴 생명력을 성찰했으면 한다.

머리는 이미 오래전에 잘렸다/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올해는 팔다리까지 잘려/ 봄바람 불어도 움직일 수 없고/ 토르소처럼 몸통만 남아/ 숨막히게 답답하다/ 라일락 향기 짙어지면 지금도/ 그날의 기억 되살아나는데/ 늘어진 가지들 모두 잘린 채/ 줄지어 늘어 서 있는/ 길가의 수양버들/ 새잎조차 피어날 수 없어/ 안타깝게 몸부림치다가/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어/ 몸통으로 잎이 돋는다

글을 쓴 정우식님은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이다. 교직 32년을 마친 후 시민사회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김제에서 태어나 줄곧 전주에서 살아왔다. 사진 제공·전북환경운동연합

전우원 사죄는 원모(怨慕)로 발현된 효행

문채병(본원 이사)

이순자 씨는 “할아버지 얼굴에 먹칠했다.”라며 질타하고, 손자 전우원은 양심고백과 5.18 사죄를 통해 “가족이 자랑스럽지 않다.”라고 고개 숙였다. 얼핏 패륜으로 평가될 성싶어 꺼림칙하다.

공자는 양을 흠친 아버지를 고발한 아들의 행위를 정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숨겨주는 데에 정직이 있다고 갈파했다. 맹자는 가설(假設)의 예를 통해 대효(大孝) 순임금 아버지가 살인했다고 가정할 경우, 천자(天子)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몰래 업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날 국법으로 친족 간의 범인은닉죄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특례의 근거가 된다.

한(漢)나라 때 동중서가 유학을 국교로 삼으면서 “임금은 신하의 근본, 아버지는 아들의 근본, 남편은 부인의 근본”이라는 삼강(三綱)을 창안해 따뜻한 유교를 변질시켰다. 오류는 가족 친화성(親和性)을 강조한 부자유친(父子有親)을 첫머리로 삼았지만, 삼강은 군위신강(君爲臣綱)으로 국가 우선주의다. 서로 간 관계에서도 오류는 천리(天理) 자연성을 기반했지만, 삼강은 지배와 종속으로 경직시켰다.

범인은닉 특례 선입견과 지배 이데올로기화된 삼강 편견으로만 보면 언뜻 패륜으로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부모의 큰 과오(過誤)를 끝까지 묵인, 추종하는 자세가 과연 자손 된 도리로 합당한가? 아니다. 특별관계로서 처벌을 면할 뿐 죄가 소멸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부모 과오와 관련하여 자손의 도리에 대해서 『맹자』나 『서경』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하다. 전두환은 단순 소과(小過)를 넘어선 천하의 대과(大過)이다. 지면상 소과는 논외로 치고 대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맹자』는 “아버지 과실이 큰 데(大過)도 원망하지 않는다면 이는 관계를 더욱 소원(疎遠)하게 하는 바이다. 그래서 원망은 아버지에게 친(親)히 하는 것이요, 인(仁)이다.”라고 했다. 대과에 무조건 역성드는 맹종(盲從)은 곧 소원, 불효로 귀결되니 불선(不善)을 원망함으로써 연모(戀慕)하여 친화성과 사회 정의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효의 길이다.

유교에서 효의 전형(典型)인 순임금은 원모(怨慕)로 모든 허물을 자책(引咎自責), 결국은 부모가 감화되도록 하였다(『서경』). 대효다운 원모(怨慕)다. 이미 고인이 된 할아버지의 대과를 대신 짚어진(負過引慝) 전우원의 원망 어린 사과가 마땅히 효행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의 사회를 도모한 씻김의 해원(解冤)이다.

신입 회원을 기다립니다



청소년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전북교육 발전과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문의 : 063/905-0218, 010-8626-4935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신입회원

2022년 7월 이후

- *7월 서민이(장학사) 황영모(전북연구원)
- *11월 이현수(미미쌀농) 소영석(미미쌀농)
- *12월 김양은(특수교육지도사)
김아영(한국전통문화고 음악교사)

2023년

- *2월 김삼덕(자영업)
- *3월 최재경(순창교육지원청 상담교사)
최정호(시민) 오고운(시민)
- *4월 고은하(시민)

▶ 정우식 이사장,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맡아 활동

우리 문화원은 2021년 5.18 기념식 즈음부터 시민사회단체들과 더욱 활발한 연대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정우식 이사장은, 5.18 최초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 기록화 사업과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올 4월부터는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면서, 5.18 기념식 및 이세종 열사 추모식,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200일 추모제 진행을 맡았다.

우리 문화원도 5.18전북행사위원회에 결함하여 참여하였다. 5.18 기념식과 이세종 열사 추모식에는 정우식 이사장, 남상팔 원장, 이미영 대표, 정은숙, 문채병 이사, 이선화 총무 등이 참석하였다.



▶ 이광철 고문, 송병주 고문, 6.10 민주항쟁 기념 학술포럼 발제 참여

우리 문화원 이광철, 송병주 두 고문님은 지난 6월 9일(금) 오후 2시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실에서,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와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이 공동주최하여 열린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 전라북도 학술포럼'에서 각각 발제자와 토론발제자로 참여하셨다.

제1부 발제를 맡은 이광철 고문은 '6월항쟁과 전라북도민주화운동협의회'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1987년 당시 전북지역 민주화운동의 한 중심에서 계셨던 지도자답게 당시 상황과 인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내심으로써 지역 운동사 정리의 물꼬를 확실하게 터주셨다.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 기념

전북청소년 통일한마당

제23회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 대회

통일 노·가·바대회

- 2023. 6. 24.(토) 09:30~12:30
- 전주비전대학교 대강당



북녘 동포에게 편지 쓰기

- 온라인 제출 : 2023. 6. 15.(월) 오후 5시까지



참가부문 : 초등 부문 / 중등(중·고) 부문

참가대상 : 전북 초·중·고등학생. 이에 준하는 청소년

통일 노래가사바꿔부르기 대회

알고 있는 노래의 가사를
평화·통일의 마음을 담은 가사로
바꿔 부른 영상을 보내주세요.

1. 팀당 인원수 제한 없음

- ▶ 반주 제출: 참가팀별로 MP3 파일로 MR 사전에 준비
(참가 등록 후 별도 공지)
- ▶ 가사 제출: 사전 준비(참가 등록 후 별도 공지)

2. 시상

- ▶ 민족통일상 민족평화상 민족화해상 민족협력상 민족행복상

※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을 드립니다.

※ 시상 내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제출 : 6월 2일(금) 오후 5시까지
- ▶ 제출 방법 : E-메일 또는 Fax
- ▶ 제출처 :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b-blue21@daum.net / Fax 0504-499-9364)
- ▶ 신청서 양식: www.blue21.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
(참가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북녘 동포에게 편지 쓰기

지금, 당신의 편지통이 필요합니다.
내 편지통이 평화의 물꼬를 트고
철조망을 녹일 수만 있다면...



1. 참가 방법

- ▶ 1인 1편지 : 노·가·바 신청자 참여 가능
- ▶ 손 편지, 그림 편지 모두 가능(이메일 제출)
- ▶ 제출 기한 : 6월 15일(수) 오후 5시까지

2. 편지 분량/형식: 본인이 직접 쓰거나 그린 작품

- ▶ 제한 없음. 자유롭게 작성 : 손 편지와 그림 편지는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이메일로 제출
- ▶ 본 사업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작품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편지 보낼 곳 :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 이메일 : jb-blue21@daum.net
- ▶ 제출 기한 : 6월 15일(목) 오후 5시까지
- ▶ 수상 발표 : 6월 30일(금) 오전 10시

※ 참가자 모두에게 기념품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참가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통보)

☎ 문의 : ☎ 063-905-0218 / 010-2050-0650 (단체 폰)

☎ 자세한 사항은 공문이나 홈페이지(www.blue21.or.kr) 참조

주최/주관



사단
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